

한류물결 세계에 퍼지다... 'K컬처와 아시아의 청년'

'2021 아시아문화포럼'
13일 오전 10시 ACC서 생중계

2021 아시아문화포럼이 오는 13일 온라인을 통해 펼쳐진다.

올해 포럼 주제는 'K컬처와 아시아의 청년'. 전세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연대감을 주는 K컬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기 6인조 그룹 비투비(BTOB) 멤버들이 K컬처 아티스트를 대표해 '2021아시아문화포럼'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는 본행사 당일 개막과 함께 공개된다.



홍석경(왼쪽) 교수와 김보람(오른쪽) 감독의 사전대담.

〈광주문화재단 제공〉

국내 대표 한류문화학자·평론가 대거 발제자로 나서 김보람 예술감독 특별대담·그룹 BTOB 축하 영상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엠비유어스앤스컴퍼니 김보람 예술감독의 특별대담을 시작으로, 국내 대표 한류문화학자와 평론가들이 K컬처를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또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중국 취안저우와 일본 요코하마가 참여해 청년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아울러 지역의 청년연구자 및 아랍에서 한류문화를 경험한 현지 대학생들의 K컬처에 대한 시각을 다양하게 접하게 된다.

아시아문화포럼은 광주광역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이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며 한국문화융합학회, 주아랍에미리트 재외한국문화원, 한국문화재단과 협력한다.

주제세션은 'K컬처, 전복과 재배치'다. '번안사회'의 저자 백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첫번째

발제자로 나서 'K컬처(POP)는 어떤 문턱을 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세계 대중문화 지형에 새로운 변화와 균열을 만드는 한류문화에 대해 논의한다. 대중음악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현준 성공회대 교수도 'K컬처'를 다각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트랜스 로컬'의 수용미학을 제안한다. 좌장은 'BTS 길 위에서'(2020) 저자인 서울대학교 홍석경 교수가 맡았다.

주제세션이 외부의 시각으로 K컬처의 세계문화사적 위치를 바라본다면, 세션1 '한류문화의 두 얼굴'은 내부에서 한류문화의 이중성을 더 세밀하게 분석한다.

세션2 '탈경계 시대, 도시와 청년문화'는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인 광주, 취안저우, 요코하마 각각의 청년 문화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하고, 아시아의 청년들이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

는지 이야기한다.

황병하 조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으로 강나경(비영리전시공간 세탕라움 대표), 김규식(청주시 청년센터 청년트락5959 센터장), 김기곤(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원)이 참여한다.

세션3은 우리지역과 해외에서 직접 K컬처를 창작, 연구, 향유하는 '청년아시아문화연구단'이 참여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깊다.

음악, 드라마, 영화,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K컬처에 대해 문화사적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장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 K컬처는 지역의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아시아문화포럼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 아시아문화포럼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 채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채널을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최명진기자

'자연 통한 인간성 회복'...강태웅 초대전

16-31일 목포 성옥문화재단 별관갤러리

강태웅 작가가 '자연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주제로 초대전을 갖는다. 초대전은 오는 16-31일까지 목포시 유달산 '성옥문화재단 별관갤러리'와 목포역 건너편 '갯바위미술관'에서 동시에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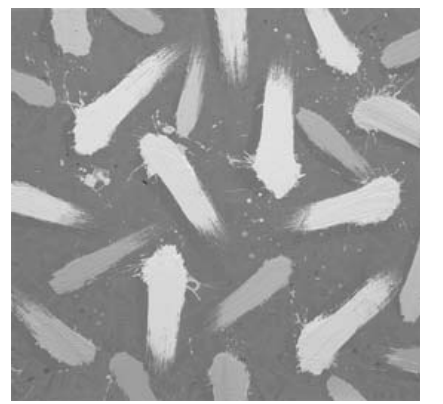
강 작가는 '자연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활동해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한 현실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단순화된 심상을 캔버스에 옮긴 작품들을 선보인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일련의 느낌들을 화면에 옮기는 작업을 해온 강 작가는 더욱 응집된 에너지의 흐름을 강렬하게 표현한 근작 70여점을 두 곳의 전시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어린 시절 함께 했던 생생한 자연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청년이 된 작가가 다시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전시를 열게 된 것이다.

안현정 평론가는 "작가는 이젤에 캔버스를 올리고 그림을 그리는 대신, 캔버스를 바닥에 깔고 자신의 행위를 쌓아올리거나 요철을 자유자재로 구현함으로써 리드미컬한 'Movement'를 생성시킨다"며 "신체적 행위의 반복은 일종의 수행과정과도 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평론가는 "상하좌우가 역전되거나 쌓을 이루는 작업들은 위계적인



강태웅 작

논리를 철저히 배제시킨다"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창작 과정들은 작업실에서 이뤄지는 창작자만의 축제"라고 소개했다.

강 작가의 작품은 행위가 중요한 작업 요소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몸짓이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고 그것들을 아우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가 탄생한다. 최근 작업인 'Movement' 연작은 종종 구조 화면과 반복되는 붓질을 그대로 드러내며 내연과 외연, 음과 양의 조화, 자연과의 소통을 추구한다.

목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강 작가는 중앙대와 중앙대학교원에서 회화를 공부했다. 이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부름스버그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목포=정해선기자

이번 주말 랜선 타고 국악 기행 떠나볼까?

내일 전통문화관 토요일공연 '신 민속기행' 유튜브 등 생중계

이번 주말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국악으로 치유해보자.

오는 9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토요일공연 국악창작무대로 '전통국악양상볼 놀음판의 신 민속기행'이 펼쳐진다.

이날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안부, 희망찬 미래를 전한다. 첫 무대는 '놀음판'의 색으로 재해석된 국악 창작민요 '축원 비나리'와 '시나위 연주'다.

다음으로 다양한 국악기의 구성으로 짜여진 '산조합주' 연주 무대가 이어진다. 이어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을 국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창작 소리극 '인당수' 무대가 준비됐다.

효심 가득한 심청의 심경을 이은비(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의 깊이 있는 소리로 전하고, 웅장하고도 고요한 인당수 바닷소리는 모듬북과 다양한 국악기 선율이 장식한다.

공연 후반부는 경기민요와 서도민요



전통국악양상볼 놀음판 공연

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경서도 풍류'와 고정되지 않은 선율에서 나오는 조화로운 매력의 '허튼 시나위' 연주 무대로 무마졌다.

'전통국악양상볼 놀음판'은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이 모여 다양한 전통 예술장르로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자 2013년 창단한 공연예술단체다.

이날 공연에는 김승호(대금·장구), 김원근(피리), 김정민(아쟁), 이소리(해금) 등이 출연한다. /최명진기자

"아시아를 공감하라"...ACC 문화주간 개막

24일까지 24문화전당서 개최
공연·체험 등 12개 프로그램

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에너지와 희망의 예술을 상생과 연대로 풀어내며 공감하는 장이 열린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즐기고 배우는 45억 아시아인의 문화축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이 '공감, 아시아'를 주제로 8일부터 24일까지 '2021 아시아문화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공연·전시·포럼·교육·체험행사 등 1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오는 8일 아시아문화주간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아시아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 3편이 준비됐다.

우리나라 이야기와 아시아 이주서사를 소재로 제작한 공연 '나는 고려인이다'가 8일 무대에 오른다. 심봉

사의 관점에서 심정전을 재해석한 공연 '두 개의 눈'은 8-9일 극장 1에서 감상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주간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에는 시민참여공연 'ACC 시민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선율을 담은 꿈의 무대를 펼친다.

아시아문화의 다양성을 동시대적 관점에서 표현한 전시도 열린다.

ACC 문화창조원과 야외공간에서 '친애하는 빅 브라더: 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에 대하여', '지구의 기억', '2021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대전환의 서막', '감각정원: 밤이 내리면, 빛이 오르고' 등 예술과 기술 융합 전시와 미디어아트 전시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K컬처와 아시아의 청년'을 주제로 한 '아시아문화포럼'은 오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세계적인 대중문화의 흐름에서 문화사적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K컬처의 가능성과 명암, 사회적 쟁점을 살피는 자리다.

아시아 각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 행사도 준비됐다.

광주·전남지역 아시아 이주민과 유학생 등이 참여하



'나는 고려인이다' 공연 모습.

는 '2021 아시아문화마당'이 8-9일 이틀 동안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아시아 음식과 놀이 문화를 경험하고 아시아 각국 전통 춤과 노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ACC 인문강좌는 '행복의 조건-우리 곁의 나르시시스트'를 화두로 두고 오는 13일 시민을 찾는다. 정유정 작가의 신작 소설 '완전한 행복'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사유해보는 시간이다.

이용진 전당장 직무대리는 "아시아 10여개 나라 주한 대사관과 문화원 등 아시아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아시아 문화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했다"면서 "다양한 행사를 오감으로 느끼고 즐기면서 평화와 위로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 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프레임 | 전신 에어안마 | 어깨 간격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텝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힐링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음파진동 모드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중력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중력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로 더 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단무중력 | LS프레임 | 세미벤츄리 | 자동체형인식 | 7가지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D마사지 | 허리온열기능 | 슬라이딩방식 | 지퍼패시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를 | 인체공학적인 프레임 | 온열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중력기능

